

---

## 어휘 · 사전 분야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남길임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 1. 머리말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 실린 글들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사전과 어휘 분야의 논의는 그 핵심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국어원의 언어 정책과 언어 연구 조사 사업은 한자어, 외래어, 신어 등 ‘어휘’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어 왔고, 국가 주도의 대사전 편찬 사업 역시 지난 20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휘와 사전 분야를 특집 주제로 다룬 경우는 각각 11회, 8회로 지난 20년간의 《새국어생활》 80여 권 중 총 19권이 ‘어휘’ 또는 ‘사전’을 주요 논제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논의의 범위를 각 특집의 주제적 경향성을 살펴보고 향후의 논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순서를 따라 살펴볼 때, 어휘 분야의 논의는 외래어, 한자어, 국어 순화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정보화, 전문화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새로운 논제들, 즉 어휘망, 전문 용어, 신어 등으로 논의의 폭을 확장해 왔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식 정보 사회는

정보의 핵심 영역에 있는 언어, 무엇보다 '어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요구하며, '어휘'는 더 이상 순수한 국어학의 영역에서만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 실린 어휘에 대한 논의는 정보 기술 분야, 문화와 소통의 문제, 타 학문 및 산업 영역과의 학제적 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으로 변화하는 국어 어휘의 환경을 조명할 수 있다.

사전학, 사전 편찬학에 대한 논의 역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발간을 기점으로 다양한 특집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는데, 사전학, 사전 편찬 방법론에 대한 연구, 국가 주도형 사전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규범 사전 또는 언어 사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였다. 무엇보다 「표준」의 편찬 과정을 반영하는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는 기존 사전의 평가와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논의, 사전 편찬 과정과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 발간 이후 사전에 대한 평가, 최근 새로운 사전 편찬을 위한 논의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국어학계에 불어 닥친 말뭉치 구축 및 말뭉치 언어학에 대한 관심,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 등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는다.

본 논의를 《새국어생활》을 넘어선 국어학 전반의 어휘·사전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제한된 지면과 필자의 능력을 고려할 때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지난 20년간 《새국어생활》에 수록된 어휘와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만으로 한정하고 각 분야 주제의 시대별 경향성과 시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특집 주제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각 분야의 주제들이 지난 20년간의 국어학 학술적 성과와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거시적인 고찰과 미시적인 고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특집 주

제들의 주제적 다양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흐름이 거시적인 고찰이라면, 미시적인 고찰은 각 주제 내의 하위 주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집 주제들의 논의 경향을 분석하고 지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실용적인 관점에서, 《새국어생활》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각 주제들의 적합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주제들이 국어학 관련 유일한 대중잡지로서 《새국어생활》의 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선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관련된다. 1991년 간행사에 명시하고 있듯이, 《새국어생활》은 나라의 어문 정책에 대한 홍보, 국어 순화 및 언어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국어 관련 연구 조사 사업의 홍보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는데, 각 주제들이 이러한 주요 기능을 담당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어휘·사전 분야 논의의 성과

### 2.1. 어휘 분야 특집 주제와 논의의 성과

지난 20년 간 《새국어생활》에서 다루어진 어휘 분야의 특집 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1985년 창간된 《국어생활》부터 지금까지 어휘 분야의 각 주제 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다음 11개의 특집 주제들은 지난 20년간 국어 어휘 분야 연구의 발자취를 한눈에 보여준다.

---

《국어생활》 02호, 1985년 6월,	특집: 국어 속의 외래어
《국어생활》 08호, 1987년 봄,	특집: 국어 속의 한자어
《국어생활》 19호, 1989년 겨울,	특집: 호칭어
《국어생활》 22호, 1990년 가을,	특집: 어휘
《새국어생활》 제1권 1호, 1991년 봄,	특집: 한국인의 이름

《새국어생활》 제3권 2호, 1993년 여름,	특집: 한국어의 외성어·외태어
《새국어생활》 제4권 1호, 1994년 봄,	특집: 한국의 지명
《새국어생활》 제4권 2호, 1994년 여름,	특집: 한국의 속담
《새국어생활》 제13권 3호, 2003년 가을,	특집: 국어의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
《새국어생활》 제16권 4호, 2006년 겨울,	특집: 신어
《새국어생활》 제17권 1호, 2007년 봄,	특집: 전문 용어와 국어 생활
《새국어생활》 제17권 3호, 2007년 가을,	특집: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

#### <표1. 어휘 분야의 특집 주제>

지나친 이분법일 수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을 두 시기로 구분할 때, 대략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 그 경계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 분수령이 되는 이유는, 그 시기에 개인의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이 급속도로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달라진 언어 사용 환경은 언어 사용 매체의 다양화, 어휘의 생성과 파급의 신속성, 정보로서의 언어 지식 처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어휘 연구의 경향성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양분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21세기 세종계획’(1996~2007)과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1999)의 간행에 따른 말뭉치의 구축과 언어 처리 기술에 대한 논의는 어휘 관련 연구 및 언어 정책에 새로운 연구 과제를 가져다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표1>의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중후반 이전의 주제와 이후의 주제는 언어 정책과 활용의 측면에서 현저히 다른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주제는 외래어, 한자어, 호칭어의 세 가지 주제로 학술적인 논의도 있었으나 어문 정책과 국어 순화와 관련한 논의가 특히 활발하였다.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 작업의 진행 속에서 1987년의 ‘국어 속의 외래어’가 특집으로 논의되었고 국어 속의 차용어 전반과 외래어 유입 양상,

신어 형성에 있어서 고유어 활용의 중요성, 국어 정책에 있어서 원칙의 중요성, 대중 매체와 교육 기관의 역할의 필요성 등이 주장되었다. ‘국어 속의 한자어’의 주제 역시 한자음의 기원과 계보, 한자어의 구조와 조어력이 논의되는 한편 ‘토박이말과 한자어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어를 순화하는 데 맹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논의(이강로),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맞춤기는 데 생기는 문제(김운학) 등 어문 정책 및 언어 생활과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 ‘호칭어’ 특집의 경우는 특히 제도적 성격이 강한 글을 많이 포함했다.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박갑수), ‘친척의 계보와 호칭’(이용백), ‘호칭과 칭호’(한갑수) 등에서는 1989년 당시 호칭어 사용 실태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한편, 부모의 칭호와 호칭이라든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알아야 하는 호칭 등을 표로 정리해 놓았다.

1990년대 초반의 논의는 한국인의 이름, 지명, 외성어·외태어, 속담 등을 특집 주제로 하는데, 1980년대에 비해 정책 및 순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정 어휘 부류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인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1994년의 ‘한국의 지명’의 경우,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지명의 전래와 그 유형성’, ‘지명 부여의 과정과 방향’ 등이 논의되었고, 특집 주제 ‘한국의 속담’은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속담에 대한 국어학적 재인식 시도’, ‘속담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신조 속담’ 등 총 8편의 글과 ‘한국 속담 관련 논저 목록’까지 포함되어 자료적 가치가 풍부하다.

‘국어의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 ‘신어’, ‘전문용어와 국어 생활’, ‘한국어의 어휘 의미망’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의 특집 주제들로, 이들 주제의 선정 경향은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말뭉치 구축 및 사전 편찬에 대한 관심 등 학계의 변화와 1990년대 후반 이후 어휘론 분야의 새로운 연구 동향을 반영한다. 언어 처리 기술이 진일보하고 대량의 말뭉치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초 어휘, 기본 어휘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소러스, 빈도, 계량화의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 등장하

였다. ‘신어’, ‘전문 용어’, ‘어휘 의미망’의 특집 주제 역시 정보로서의 언어 지식 처리에 대한 중요성, 인터넷 언어를 포함한 각종 신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전문어 정책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으로 인해 새로이 논의된 주제들이다. 이들 세 주제 모두 해당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연구 조사 사업, 즉 신어 조사 사업, 전문 용어 정비 사업, 세종 전자사전 및 어휘 의미 체계 관련 사업 등을 전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책의 방향을 알린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어휘 분야의 특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한 논의를 이루어 왔음에 틀림없으나, 국어 관련 대중 잡지로서 《새국어생활》의 특성과 국어학계의 어휘론 연구 동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 2.2. 사전 분야 특집 주제와 논의의 성과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는 총 8회로 그 중 7회가 국립국어원의 『표준』 편찬 사업의 준비, 진행, 평가의 단계에서 논의되었다. 구체적인 특집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국어생활》 7호, 1986년 겨울	특집: 국어사전과 그 편찬
《새국어생활》 제2권 1호, 1992년 봄	특집: 국어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제2권 4호, 1992년 겨울	특집: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
《새국어생활》 제3권 4호, 1993년 겨울	특집: 북한의 국어사전
《새국어생활》 제5권 1호, 1995년 봄	특집: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제8권 1호, 1998년 봄	특집: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새국어생활》 제10 권 1호, 2000년 봄 특집: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새국어생활》 제19 권 4호, 2009년 겨울 특집: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

---

<표2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를 살펴보면 『표준』사전 편찬의 시기별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데, 특집 주제들 각각은 지난 20년간 국어학계에 사전학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지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한국 사전사의 개화기 내지는 도약기’(홍재성, 2009)라는 평가가 말하듯, 실제로 이 시기에 사전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사전 편찬학 방법론에 대한 논의, 다양한 유형의 사전 편찬의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표준』의 편찬 사업의 계획과 시작의 시기에 ‘국어사전과 그 편찬’(1986, 봄호), ‘국어사전의 뜻풀이’(1992, 봄호),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1992, 겨울호), ‘북한의 국어사전’(1993, 겨울호)의 네 가지 특집 주제가 논의되었는데, 이들 특집 주제는 실제 사전 편찬 계획을 앞두고, 사전학에 대한 논의를 광범위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어사전과 그 편찬’에서는 국어사전의 역사와 바람직한 사전 편찬을 위한 방향, 사전학 정립의 필요성 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당연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사전에 대한 당시의 요구는 언어 규범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규범적인 사전(김민수)과 언어 현상의 충실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기술적인 언어 사전(홍재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규범 사전’과 ‘기술 사전’의 무게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으나 『표준』이 『표준』, 즉 ‘규범’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기술 사전에 대한 숙제는 아직도 미완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국어사전의 뜻풀이’에서는 사전 편찬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

인 뜻풀이를 중심으로 기존 사전에 대한 반성과 축적된 국어학적 성과를 사전 기술에 적용하는 문제가 품사별로 논의되었고, 유사한 시기의 ‘동양 삼국의 사전 편찬에 관한 문제’, ‘북한의 국어사전’의 두 주제는 모두 관련 국제 학술 회의와 토론회의 발표와 논의를 담은 특집으로 초기 종합 사전 편찬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들과 실제 사전 편찬에 있어서의 쟁점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

『표준』 편찬의 중반기와 마무리 단계의 특집들은 대사전 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거나 점검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룬 ‘종합국어대사전 편찬’(1995, 봄호), ‘사전 편찬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1998, 봄호)과 99년 『표준』 발간 이후 평가와 의의를 담은 ‘표준국어대사전 발간’(2000, 봄호)의 세 가지 주제이다. 95년 봄호에서는 92년부터 시작된 대사전 편찬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도록 <종합국어대사전> 집필 지침과 사전 편찬 관련 하위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98년 봄호에서 역시 『표준』 집필의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되어야 할 사전학적 문제들을 품사와 어휘 부류별로 고찰하고 있다. 99년 『표준』 발간 이듬해인 2000년 봄호는 『표준』의 편찬 경과와 전반적 특성을 소개하는 동시에 『표준』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대한 글도 함께 실었다. 이 중 ‘표준국어대사전’과 ‘어문 규범’(안상순), ‘문제점이 많은 『표준국어대사전』’(조재수)의 글은 『표준』이 지향하는 ‘규범’, 『표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향후 수정·보완해야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주장들은 향후 새로운 사전 편찬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전과 관련한 마지막 특집호인 ‘새로운 사전 편찬의 의미와 과제’(2009, 겨울호)는 학계와 업계 전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사전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한계’(홍재성)는 10년 전의 『표준』 사전을 반성하며 단일어 언어사전으로서 한국어대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논의로 20년 가까이 학계에서 지속되어 온 주장을 대표하는 글이며, 그 외 세 편의 주제는 지식 정보



사회, 다문화 사회, 디지털 시대로 대표되는 현대에서 새로이 조명되는 사전 편찬의 주제들을 담고 있다. 이들에게 논의된 참여형 사전, 연결 지성을 추구하는 개방형 사전, 다국어 지원 학습용 웹사전 등은 '진정한 언어 사전'이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함께 향후 새로운 대사전이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3. 어휘·사전 분야의 평가와 지향 방향

이상에서 어휘·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들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 탓에 충분히 살필 수는 없었지만, 어휘·사전 분야 모두 달라진 언어 사용 환경과 국가 주도 대사전 편찬 사업 등의 시대와 문화의 요구에 따라 특집의 주제와 방향이 유연하게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특집 주제는 어문 정책에 대한 홍보, 언어 생활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국어 관련 연구 조사 사업 홍보라는 국어원 일반의 목표를 대체로 만족시키는 주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지난 20년간의 논의의 기반으로 《새국어생활》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더 언급할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남았다. 어휘·사전 분야에서 지금까지 미진하여 좀더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에 대한 논의, 《새국어생활》의 성격과 지향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이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된 어휘나 사전 분야의 특집 주제들이 충분한 다양성과 시의적 효용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소외된 분야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소외된 부분은 다름 아닌 '교육'과 '홍보'이다. 국어 정책 기관에서 '어휘', '사전'의 분야는 가장 대중성이 짙은 분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두 분야는 국립국어원 사업의 홍보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교육, 일반인을 위한 사전의 구조와 활용에 대한 교육적인 분야에 대한 주제와 연구 조사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양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어휘 분야의 경우, 어휘 교육의 목표와 방향, 어휘 교육의 방법, 교육용 기초 어휘 선정과 활용 방안, 개정 교과서와 어휘 교육,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사전 분야의 경우 일반인을 위한 사전의 구조와 활용, 교육 현장에서의 사전의 활용, 사전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국민의 언어생활과 사전 활용의 문화적 의의 등이 흥미로운 주제로 논의될 수 있다. 어휘 교육과 사전 사용 교육에 대한 주제는 《새국어생활》이 국어 관련 유일 대중 잡지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문화 국민으로서 격조 높은 어휘의 사용에 대한 관심, 국어사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나 활용이 점차로 더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편찬될 개방형 대사전의 편찬 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범국민적 차원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적인 언어 사전에 대한 요구와 위키 방식의 개방형 사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지식의 총체를 기술하는 사전과 다문화 사회를 고려한 학습용 웹사전을 연동시킬 것인지, 각기 구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고견뿐만 아니라 사전 사용자의 견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계뿐만 아니라 출판업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필자가 참여하는 사전 특집, 쟁점에 대한 토론문의 수록도 의미가 있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 편찬되어 온 여러 유형들의 사전의 가치와 활용 의의를 점검하고 다양한 유형의 한국어 사전 편찬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흥미로울 것이다. 일반적인 사용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작가나 학자, 교육자의 관점에서 분명 지금까지의 한국어 사전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학술적 관점에서는 속담, 관용어, 연어, 상투어, 문법 패턴 등 의미·기능 단위로서의 다중 어휘 단위(multi-word)에 대한 주제가 어휘 분야와 사전 분야 모두에서 흥미로울 것이다. 지난 20년간 단일 어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다중 어휘 단위의 기술과 사전 기술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국어에서 나타나 관습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나 특정한 장르, 사용역에서 특정한 기능으로 쓰이는 구 단위 표현들에 대한 기술과 사전 처리는 현재의 사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새국어생활》의 성격과 대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 20년 간의 《새국어생활》의 어휘·사전 분야의 특집들은 충분히 시의적절했고 유용한 논의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특집 주제와 관련한 글들은 대중성을 표방하기보다는 전문성이 강한 논의가 많으며, 논의의 성격 또한 학술성이 짙은 경우가 많다. 《새국어생활》이 국어 관련 유일 대중 잡지로서 향후 어느 정도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지는 향후 새로운 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